

태권도 사범 재교육 인식과 제도 정착 방안

김나혜(신한대학교 조교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태권도 사범 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인식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사범들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방식으로는 온라인 영상 교육과 이론강의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화 대신 자율선택형으로 재교육 제도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둘째, 재교육 체계 구축 시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요구, 물리적 연수 여건의 개선, 자발적 의무화 환경 조성, 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 및 사범 재교육의 의미 홍보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태권도 사범 재교육을 의무화하여 강제성을 두기 보다는 태권도 현장의 특성과 사범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자발적으로 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태권도 사범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총론적 관점의 연수 교육과정 개발과 태권도 사회교육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태권도 사범 재교육, 재교육과정, 재교육정책, 사범교육수요, 전문성개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8354)

* kimnahye@shinhan.ac.kr

I. 서 론

지식의 생성 속도가 빨라지고, 그 규모가 방대해 짐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절반이 새롭게 대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Arbesman, 2014). 지식에 대한 빠른 전환으로 지식의 권위도 상실되어가는 것은 곧 사회제도로서의 교육 가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상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자들 또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는 변화된 교육에 대한 가치관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태권도 지식의 전달은 태권도 도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태권도 사범이 몸쓰는 법부터 태권도 정신과 관련된 정보 등 다양한 지식을 전달한다. 따라서 태권도 사범이 가진 역량은 도장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경진, 석부길, 2013). 이는 태권도 사범이 태권도 교육계획, 실행, 피드백과 관련된 태권도 교육뿐만 아니라, 차량운행, 주말 체험학습과 견학, 줄넘기와 각종 특강 개설, 태권도장 홍보 등 많은 업무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김서경, 안근아, 2020), 조직 구성이 영세한 태권도 도장 구조에서 한명의 교수자로서 태권도 사범의 역할이 곧 태권도 교육의 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많은 태권도장과 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태권도 사범들은 태권도 교육의 세부내용과 그 질을 변화시켜왔다. 무예에서 스포츠로, 나아가 공연에 이르기까지 태권도를 정의하는 영역의 한계를 확장시켜 오면서 변화된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며 가르치려 노력하였다. 이는 COVID-19 시기에 태권도장을 지킨 사범들의 일상과 노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박성언, 김나혜, 2020). 이처럼 태권도 사범들은 교육 콘텐츠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방면의 노력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며 적극적 교수자로서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변화는 태권도 사범의 노력만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태권

도 관련 지식과 교육 환경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태권도 사범들이 미래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 갖춘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실천적 교수법을 갖추는 것은 향후 교육 환경과 내용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사회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 집중 연수나 강의식 교육, 온라인 학습을 통한 전달식 교육은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교육의 효과 또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ko, 2004). 변수가 많은 교육 환경과 태권도 수련생들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태권도 사범 재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범으로써의 반성적 성장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 등에서 운영 중인 태권도 사범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들은 대부분 자격 부여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상이나 목적이 제한적이며, 사범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단기적 형태로만 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기에 태권도 사범들의 역량 강화와 선순환적 문화를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용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손천택, 박정준, 고문수, 박정호(2015) 연구에 따르면 WTA의 교육과정이 태권도장의 지도 현장을 외면한 채 이론에 치중한 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박원비(2016)는 태권도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대학교 태권도학과와 교육목표는 ‘유능한 지도자 양성’ 이지만 실제 태권도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태권도 사범이 학습하는 태권도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이 현장과의 괴리를 나타냄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래 사회가 지향하는 역량을 갖추기에는 사회 문화 구성 주체자가 대중으로 전환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태권도 사범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태권도 사범 교육과정(손천택, 2013; 이지훈, 이주욱, 2007; 손천택, 박정준, 고문수, 박정호, 2015; 송정명, 2015; 장용규, 임태희, 최치선, 이세환, 2015; 손천택, 장용규, 박상봉, 임태희, 김홍식, 2016; 박정호, 박정준, 김나혜, 2019), 태권도 사범 역량(김서경, 안근아, 2020; 선우유영, 정운

덕, 2020; 임태희, 조임형, 2007)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각각의 연구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태권도 사범 교육에 대한 검증과 그 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대부분 자격 부여 과정에 집중하여 중장기적 과정과 재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태권도 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태권도 사범들이 ‘태권도 사범 재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방안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과제를 탐색하고, 태권도 사범 재교육의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초로 태권도 사범이 미래 사회 태권도 교육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질 향상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정책 수립과 태권도 사범 집단의 문화 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권도 사범을 대상으로 사범 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하였고, 재교육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료수집

1) 문헌 조사

태권도 사범 재교육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정책자료, 연구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태권도 사범 재교육 사례에 대한 기초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

2) 설문 조사

문헌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태권도 사범 재교육에 대한 태권도 사범의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인식조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재교육의 필요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개폐쇄형 설문지를 개발하여 스포츠 교육학 전공, 스포츠 사회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및 연구자 3명으로부터 내용의 타당성, 충분성, 분량의 적정성, 문항 배열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태권도 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사범으로 국기원에서 실시하는 사범 연수를 이수한 자로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수거되지 않은 설문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31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특성	빈도(n)	비율(%)	구분	특성	빈도(n)	비율(%)
인구	남	225	72.50	단	4단	93	30.00
	여	85	27.50		5단	152	49.17
연령	25세 미만	75	24.17		6단	65	20.83
	25세 이상-30세 미만	152	49.17	수련기간	10년 미만	54	17.50
	30세 이상-35세 미만	83	26.67		10-14년	98	31.67
	35세 이상	28	9.17		15-19년	119	38.33
거주지역	서울시	39	12.50		20년 이상	39	12.50
	경기도, 인천	106	30.83	지도경력	5년미만	152	49.17
	충청도	26	8.33		5-9년	127	40.83
	강원도	8	2.50		10년 이상	31	10.00
	경상도	85	27.50	직위	보조사범	88	28.33
	전라도	41	13.33		정사범	127	40.83
	제주도	5	1.67		지도사범	96	30.83
	합계	310	100		합계	310	100

2) 심층 면담

태권도 사범 재교육의 실천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태권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태권도 전문가는 태권도 사범 경험과 태권도 도장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로, 태권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박사학위자 6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와 개별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1회씩 약 60분간 진행하였으며,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안은 전화 통화 또는 이메일로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에 대해 동료 간 검증을 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심층면담 참여 전문가의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세부전공	구분	성별	연령	세부전공
A	남	60대	스포츠사회학	D	남	30대	스포츠경영학
B	남	40대	스포츠교육학	E	여	30대	태권도학
C	남	40대	스포츠교육학	F	남	20대	스포츠사회학

2. 분석 방법

문헌연구는 문서를 전산화한 뒤 내용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결과를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의 폐쇄형 질문은 빈도분석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은 범주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은 면담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의 과정을 거쳐 녹취하고 전사한 뒤, 귀납적 범주분석으로 유목화하여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이후 동료 연구자와 논의하여 도출된 결과를 검토 및 수정·보완하여 최종 범주를 도출하였다.

3. 연구의 진실성

자료를 수집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련 문헌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하

여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신뢰성 준거(trustworthiness criteria) 기준에 따라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외부 연구자와 동료들과의 협의(peer debriefing) 방법을 실시하여 편향된 해석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III. 태권도 사범의 재교육 인식

1. 태권도 사범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태권도 사범 재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필요없음’ 이 44.17%, ‘필요함’ 이 55.83%로 나타났다.

표 3. 사범 재교육 과정 필요성 인식 결과

구분	빈도(n)	백분율(%)
없음	137	44.17
있음	173	55.83
합계	310	100

개방형 설문을 통해 ‘필요없음’ 으로 응답한 사유를 살펴본 결과, 태권도 사범의 역량은 현장에서 익힐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범 연수의 내용이 대학의 태권도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하며, 다른 연수과정이나 민간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유사한 점이 많고, 집중 교육과 같은 연수보다는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터득한 것이 태권도 지도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의 태권도학과와 교육적 차별성이 낮다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정호, 박정준, 김나혜, 2019; 박정호, 2017). 또한, 재교육을 받을 시기에는 사범이 아닌 관장으로서 역할이 변화되기에 사범 연수보다는 직급에 따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범 연수에서의 내용이 현장에서 직접적으

로 사용되는 지도법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며,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지식 이상의 가치를 주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개방형 설문을 통해 ‘필요함’으로 응답한 사유를 살펴 본 결과 지도력 향상, 초심 회복, 사범의 태도 개선, 사고 예방, 변화된 것 습득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교육방식과 세대별 가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기적 교육이 필요하며, 사범 재교육을 통해 변화된 태권도 교육과정, 용어, 경기 규칙 등을 인지하여 지도자로서 태권도계의 표준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나타났다. 한편,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에 둔감한 동종업계 종사자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함으로써 사범 집단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태권도 사범 재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선호도

1) 재교육 강좌의 유형

선호하는 사범 재교육 강좌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대면 교육이 3.33%, 소규모 대면 교육이 31.67%, 온라인 실시간 교육이 10.83%, 온라인 영상 교육이 41.67%,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이 12.50%로 나타났다.

표 4. 재교육 강좌의 유형

구분	빈도(n)	백분율(%)
대규모 대면 교육	10	3.33
소규모 대면 교육	98	31.67
온라인 실시간 교육	34	10.83
온라인 영상 교육	129	41.67
온오프라인 혼합형 교육	39	12.50
합계	310	100

이러한 결과는 시대의 변화가 대규모 집중 교육 보다는 소규모를 선호하고, 비대면 방식을 통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재교육 프로그램은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교사의 노력에 따라 쉽게 교육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강소영, 2020). 실제로 COVID-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으며, 심판, 지도자 강습회나 국기원 연수원에서 4품·단자 전환 교육, 사범 이론 교육을 비대면방식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태권도 사범 재교육을 운영하는데 있어 강의의 주제에 따라 온라인 영상 교육 방식과 함께 소규모 대면 교육 방식으로의 운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2) 재교육 강의 방법

선호하는 재교육 수업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이론강의형이 38.39%, 토의/토론형이 10.97%, 특강/세미나형이 25.81%, 현장학습 및 실습형이 24.81%로 나타났다.

표 5. 재교육의 강의 방법 유형

구분	빈도(n)	백분율(%)
이론강의형	119	38.39
토의/토론형	34	10.97
특강/세미나형	80	25.81
현장학습 및 실습형	77	24.84
합계	310	100

이러한 결과는 태권도 사범들이 재교육에서 원하는 수업방법은 지식이나 이론 전달에 효과적인 강의형이었으며, 이와 더불어 아직 정형화되지는 않았고 널리 퍼지지 않았지만 새롭고 효과적인 지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특강이나 세미나 형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사범이 이미 자격을 취득하며, 현장 경험

이 있는 교수자임을 고려할 때 수동적인 강의 형태보다는 현장의 내용을 교환하거나,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진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강의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과목별, 주제별 강의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3) 재교육 제도화

재교육의 제도화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의무화가 6.67%, 자유선택형이 67.50%, 특별직무교육이 6.67%, 승급교육이 19.17%로 나타났다.

표 6. 재교육 제도화 희망 유형

구분	빈도(n)	백분율(%)
의무화	21	6.67
자유선택형	209	67.50
특별직무교육	21	6.67
승급교육	59	19.17
합계	310	100.01

인식조사 결과에서 자격 조건 취득 후에 자격을 재검증하는 ‘재교육 의무화’에 대한 희망이 적은 것은, 기존의 공신력있는 자격에 대한 승급 교육의 응시율이 적은 것으로 뒷받침된다. 태권도 사범 교육의 의무 조건은 사회적으로 태권도 사범의 기본 자격 조건은 국가 법령에 의거 관리되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 2급(태권도)’과 국기원의 ‘3급 태권도 사범 자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기원의 3급 태권도 사범 자격은 태권도 문화를 설명하는 ‘사범’으로써의 직위를 직접적으로 자격에 명시하여 사용하는 자격으로 공신력을 가진다. 다만, 국기원에는 태권도 사범 2급과 1급 자격 과정이 있지만 배출된 3급 사범에 비해 응시율과 승급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낮은 편인데(최상환, 2017), 이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범 재교육 과정에 대한 필요도가 낮고, 특히 재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는 재교육 의무화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민간에서 현직에 있는 사범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재교육 자체에 대한 기피보다는 현장중심형 사범 역량 강화 연수를 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재교육 과목의 주제

재교육 교과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체육학 기반 이론 과목, 도장 운영 및 관리, 교육법, 태권도 관련 과목이 도출되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상담법과 문제행동관리, 변화된 태권도 기술, 자유폼새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태권도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지도력 강화와 관련된 주제의 과목 개수가 가장 많았다.

표 7. 사범 재교육 시 선호 과목

범주	과목명
체육학 기반 이론 과목	건강관리, 상담법(심리케어, 아동),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시설운영관리, 안전관리(부상치료_재활), 운동역학(근육 움직임의 이해), 트레이닝법
도장 운영 및 관리	도장운영 및 관리, 블랙컨슈머관리, 사범교육역량강화 교육
교육 내용 및 지도법	교구 활용, 커뮤니케이션(사범 언행 및 언어 실제 적용법, 성인수련생 대상), 지도법(연령별, 아동 대상, 문제행동, 장애학생), 심사평가법, 프로그램개발법
태권도 기술 및 문화	기본동작, 겨루기, 격파 및 시범, 마살아츠, 무도, 시범, 폼새(경기_자유폼새), 인성교육(아동), 태권도 관련 최근 이론

사범들이 재교육에서 선호하는 과목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직접적인 과목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교육과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요구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급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획일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이옥경, 안영혜, 2018). 태권도 사범 자격과정은 대부분 태권도학과 관련된 개론과 체육학 위주의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최상환, 2017), 사범들이

재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들은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형태의 과목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이들은 과목 선택의 이유로 사범 역량을 키우거나, 퇴관율을 줄이는 법, 시대변화 반영,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는 정보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정보를 교육하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정보, 무도정신을 잘 알려주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태권도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례 중심형 과목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현장에서 사범이 지도 중에 겪는 반복적인 어려움에 대처방법을 찾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실제로 다른 교과와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누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 활동에 필요한 교수법 습득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강귀례, 정상우, 2019). 현장의 유동성과 사례의 다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범들에게 있어 재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거나 사범의 태도 및 직업적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의적인 형태로 교구를 활용하거나 지도법을 적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IV. 태권도 사범 재교육 제도 구축 방향

태권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태권도 사범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제도의 개선방안 및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면담을 실시한 결과 물리적 환경과 교육방법 및 내용으로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

사범 재교육을 실시할 때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새로운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직결됨에 따라(김경주, 2010), 재교육 과정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변숙자, 2020). 이러한 과정은 태권도 사범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고, 그에 따른 경험이 충분한 상태에서 새로운 연수는 그 이상의 내용을 전달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태권도 전공자와 전공자가 아닌 자를 나누어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재교육에 있어 경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질적으로 강화되어야 사범에 대한 직업적 의식수준이 올라갈 것 같다. (참여자 C)

따라서 태권도 재교육 과정의 질을 높인다면 사범들의 참여를 높일 뿐만 아니라 태권도 교육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질 높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실기 위주의 수업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형태의 강의가 제안되었다. 이는 사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범들 스스로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수를 진행해야 연수의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도장의 관장님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의 교육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A)

격과 기술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일선 도장에서 하기 어려워요. 격과처럼 기존에 사범들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재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되죠. 요즘엔 교육법도 바뀌잖아요. 에듀테크도 쓸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소규모 교육이 적절하죠. (참여자 E)

이처럼 태권도 사범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사범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강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사범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학문적 교육이 기관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태권도 사범들의 현장은 그보다 더 치열하기에 현장밀착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태권도, 호신술, 마샬아츠와

같은 고난이도의 기술 등 태권도 사범이 경험이 부족하고, 홀로 배우고 교육 및 관리하기 어려운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태권도 기관 재교육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관에서도 끊임없이 관련 교육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물리적 연수 여건의 개선

재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물리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인 태권도 사범들은 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연수 공간이 생활환경과 멀리 떨어져 있고, 사범 연수기간동안 대체인원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시간과 함께 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교육시기가 재교육 참여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난다(황해익 외, 2008; 최진령, 김인순, 2017).

사범님들은 환경 및 시간, 장소가 중요하다. 지역별 교육장으로 찾아가서 부담되지 않고 교육 후 메일로 공유해 교육받은 내용을 바로 타임(수업)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여자 B)

도장 사범들의 일에 지장 없이, 시간 제약이 없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태권도 사범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소액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연수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대면강의와 함께 혼합형의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여 중요한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실기나 모의서 해야 하는 것을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다. (참여자 C)

재교육의 운영 방식을 소규모 지역형 대면 교육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적고, 관심있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형태의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범들이 방해 없이 재교육 본래의 의미에 충실할 수 있다. (참여자 E)

태권도 사범들이 재교육을 위해 물리적 연수 여건에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도장을 비울 수 없음, 지역적 이동이 어렵고 자발적인 시간 활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소규모 지역 모임, 기관의 지역별 재교육 집합 교육, 온라인 활용 및 주말 활용 등을 제시하여 태권도 사범이 사범 역량 강화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행·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태권도 사범 재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수기간과 장소 선정이 중요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이 요구된다.

3) 자발적 의무화 환경의 조성

태권도 사범은 한번 취득하면 평생 동안 사범을 하지 않더라도 영구적으로 부여되는 자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격은 5년이나 10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하여 사범의 경력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제안하였다. 재교육 프로그램 의무 불이행시 기타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강제성이 필요한 이유는 지도자로서 꾸준히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변화가 빠른 지금 시대에 교수자로서 사범의 영구적 자격의 의미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발전하지 않는 사범의 태권도 교육은 뒤처지게 된다. (참여자 F)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범도 많지만,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 공신력 있는 교육을 통해 사범을 인정하고 태권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관의 역할이다. (참여자 D)

다만, 태권도 사범 자격의 강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태권도 사범이 스스로 사범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권도 사범의 경력관리행동은 경력성과와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이상호, 2020), 이는 진취적으로 경력관리를 하는 진취적인 태권도 사범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범들이 자발적으로 역량 계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적이다.

다만, 연수 주체가 다르므로써 일관성이 부족한 교사 재교육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박재정, 2006), 기관에서 일련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범 교육을 받은 도장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서 학부모들이 여기 사범님들이 교육을 받았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제대로 이를 이수하지 않은 도장에서 이를 함부로 표기하지 못하도록 차별화 방안을 꾀야한다. (참여자 A)

태권도 사범 재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기존의 사범들이 현장에서 최신의 태권도 교육을 적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반성적 태도로 성찰하는데 있다. 특히, 자발적으로 연수를 이수하였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듣지 않은 이들 또는 연수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자격이 권위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를 실시하여 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태권도 사범 재교육 과정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큼 혼합형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일부 재교육 과목을 선택형으로 연수를 듣도록 하되, 일정 연수 이상을 이수할 경우 그에 따른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자격을 위한 연수가 아닌 자발적인 형태로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성 달성에 더욱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안전교육, 태권도 표준화를 위한 정례교육 등은 꾸준히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태권도 사범 집단의 권위를 유지하고 태권도 기관이 회원들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안전선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재교육을 받았을 때 교통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와 조건을 다양하게 하고, 사범들이 유급휴가를 낼 수 있도록 도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태권도 사범들의 시간은 곧 수련생에 대한 지도와 직업적 행위이기에 태권도 사범의 재교육은 직업적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한 노력

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 도장 경영자들 또한 태권도 사범의 이러한 노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당장의 태권도 사범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만 고민하기 보다는 충분히 이에 대해 배려하여 직원 관리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연봉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사범의 노력에 대해 인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태권도 사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 환경 개선과 태권도 도장 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태권도 사범은 최일선에서 태권도인들을 지도하기에 태권도계가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이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할이 과중하여 제도적 강제만으로는 태권도 사범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태권도 사범 재교육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사범 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사범들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방식으로는 온라인 영상 교육과 이론강의형을 선호하였고, 강제형 보다는 자율선택형으로 다양한 내용의 교과목이 개설된 재교육 제도가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 물리적 연수 여건의 개선, 자발적 의무화 환경 조성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태권도를 교육하는 사범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경쟁력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태권도 사범 재교육이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태권도 사범의 역량 강화를 위한 총론적 관점의 연수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과 태권도와 관련된 사회교육 정책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문 대상자의 범위와 수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요구되며, 태권도 사범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나아가 효율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귀례, 정상우(2019). 대학기관 소속 한국어교원의 국립국어원 교원연수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문화연구**, 25(6), 381-400.
- 강소영(2020). 한국어 교사 대상 온라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과 개선 방향.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11), 1011-1035.
- 고경진, 석부길(2013). 태권도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마케팅 요인과 수련생 지향성 및 태권도장 비재무 운영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2(5), 611-625.
- 김경주(2010). 국어과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초등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4, 173-206.
- 김서경, 안근아(2020). 태권도 사범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스포츠학회지**, 18(4), 47-55.
- 대한태권도협회(2023). **대한태권도협회 등록 회원도장 현황(1994~2019)**.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taekwondo.co.kr/e004/post/1488/e0042>
- 박성언, 김나혜(2021). 코로나 19 팬데믹 (COVID-19 Pandemic)에 따른 태권도 도장 지도자들의 일상과 걱정. **한국체육학회지**, 60(1), 49-57.
- 박정호(2017). **태권도 교육과정 기준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정호, 박정준, 김나혜(2019). WTA태권도 사범 교육과정의 변천과정 및 개선방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6(1), 77-90.
- 변숙자(2020). 중등1급 국어과 정교사 자격연수를 통해 본 중등국어교사 재교육의

- 문제점과 개선 방향. **청람어문교육**, 76, 37-66.
- 손천택, 박정준, 고문수, 박정호(2015).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WTA 태권도 사범 교육과정 개정 방안. **국기원 태권도연구**, 6(3), 31-62.
- 유창완, 김기철, 최치선(2013). 태권도 교육과정 개발. **국기원 태권도연구**, 4(2), 51-82.
- 이상호(2020). 태권도 사범의 경력관리행동에 따른 경력성과와 혁신행동의 구조적 관계. **무예연구**, 14(2), 267-287.
- 이옥경, 안영혜(2018). 부산시 보육교직원의 재교육지원 개선 및 요구에 대한 인식.
- 이옥선, 손혁준, 최의창, 이원희(2018). 중등 체육교사의 자발적 전문성 개발 활동 참여 형태 및 특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5(1), 1-23
- 조광민(1998). 태권도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3(2), 203-216.
- 최상환(2016). **태권도 사범교육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 최진령, 김인순(2017). 육아종합 지원센터 보육교직원 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4), 405-428.
- 황해익, 박성미, 김정신, 박선훈(2008). 보육교사 승급교육에 대한 교사와 원장의 인식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 53(6), 173-198.
- Arbesman, S. (2014). **지식의 반감기: 세상의 변화에는 공식이 존재한다(이창희 역)**. 서울: 책읽는 수요일.
- Borko, H. (2004).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eacher learning: Mapping the terrain. *Educational Researcher*, 33(8), 3-15.
-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2009).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3rd ed.)*. London: Sage.
- Guba, E. & Lincoln, Y.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Hoekstra, A., Beijjaard, D., Brekelmans, M., & Korthagen, F. (2007). Experienced teachers' informal learning from classroom teaching.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13, 189-206.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iles, M. B., Huberman, A. M., & Saldana, J. (201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 sourcebook*. CA, US: Sage Publications.
- Newman, K. K. (1978). *Middle-Aged Experienced Teachers' Perceptions of Their Career Development*. The Ohio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Settlement Plan of Taekwondo Master Retraining

Kim, Na-Hye(Shinhan Univ.)

The study was aimed at exploring the awareness of taekwondo masters' retraining and how to settle the system. To do this, we conducted literature surveys, cognitive surveys, and expert interview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of the retraining of taekwondo masters, they answered that teacher retraining was necessary and that they preferred online video education and theoretical lectures as a method, and it was hoped that an autonomous selective reeducation system would be operated instead of institutionalization. Second, when constructing a retraining system, it was derived from the demand for various subjects, the improvement of physical training conditions, the creation of a voluntary compulsory environment,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ducation. Therefore, rather than making the retraining of taekwondo masters mandato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urriculu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ekwondo field and the needs of masters in order to establish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in re-training voluntarily. These research results are judged to b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d basic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training curriculum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aekwondo teachers and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social education policies.

Key words: retraining taekwondo Masters, in-service training course, retraining policy, educational needs for instructor, professional development

논문투고일 : 2023.06.30
심 사 일 : 2023.08.25
심사완료일 : 2023.08.28